

KCC, 석면폐기물 부실처리 “갈등”

환경단체, 비산방지시설 없이 처리 ... 시민안전 위협으로 대책 촉구

KCC 수원공장 터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이 부실하게 처리돼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5월8일 주장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5월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수원KCC공장 석면조사보고서>를 통해 공사장 내부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의 굴착, 운반, 석면폐기물 선별 등의 작업이 비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석면폐기물을 선별한 토사는 텐트 등 비산방지시설 없이 쌓아두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3차례에 걸쳐 선별과정을 마친 토양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장 외부에 대한 조사결과 선별작업장에서 16m 가량 떨어진 서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 미끄럼틀 먼지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검출된 석면 농도가 1% 미만이었으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최소량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미량에 노출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는 학생 등 400여명이 있고 반경 2km 이내 27개 각급 학교에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석면폐기물 처리 공사현장에서 직선으로 44m 거리에 하루 12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 승강장이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비산방지조치, 주변지역 정밀조사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CC는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해 처리하고 있고 선별토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또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석면전문감리기관에서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를 맡겼고 매일 공사현장과 인근지역에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 중 비산이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부선 수원역 인근에 있는 KCC 수원공장(부지면적 27만여㎡)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석면원료를 사용해 각종 석면 시멘트를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다.

KCC는 공장부지 일부를 롯데쇼핑에 장기임대하고 연면적 21만3617㎡의 백화점과 주상복합을 신축하고 일부는 도로나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수원 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과정에서 지하에 5만여톤의 석면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월부터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받아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9>